

#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윤미설(尹美雪)

이동형(李東炯)\*\*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있는 대학생 74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의 주요 하위유형(수줍음형 및 비사교형)에 따라 정서적 부적응의 지표들(즉,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 및 주관적 행복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성차 분석 결과,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수줍음 및 비사교성,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수줍음은 모든 정서적 부적응 지표들과 정적 상관을, 주관적 행복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비사교성은 사회적 불안과 정적상관을, 주관적 행복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성별을 통제된 후 비사교성은 수줍음과 공유하는 변량 외에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으며, 특성분노에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lson(2013)의 대상자 중심 분석방법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와 성차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수줍음형 집단은 비사교형 및 비위축 집단에 비해 모든 정서적 부적응 지표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주관적 행복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비사교형 집단은 사회적 불안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비위축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줍음형 집단보다는 낮지만 비위축 집단보다는 높은 사회적 불안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의 적응적 함의가 구체적인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기존의 청소년 대상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며,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의 개념이 성인진입기에도 유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비사교형 위축의 경우 청소년기에 비해 성인진입기에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감소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정서적 부적응, 주관적 행복감, 수줍음, 비사교성

\* 본 논문은 윤미설(2017)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Email: lepsy@pusan.ac.kr

## I. 서론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이자 인생의 전환기이다(Arnett, 2000).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점차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자율적인 삶을 추구해간다. 또한, 확장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등의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 시절과 확연히 달라진 대학생들의 환경에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신명희 외,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6), 전국 대학생의 인구비례에 따라 추출한 643명의 조사대상 중 73.3%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새로운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0.1%는 어색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편하여 의도적으로 만남을 회피한다고 하였고, 41.7%는 어색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준다고 답했다. 이는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며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자신의 일상이나 고민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 토로하는 대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79.5%가 온라인 익명 소셜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온라인 익명 소셜서비스에 올라오는 일상이나 고민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6).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들이 사람들과의 면대면 관계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고민과 일상을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소속감과 위안을 얻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해체나 대인관계 약화 등 양질의 대인관계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막상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적 부적응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심리적 갈등을 겪을 때 나타난다(Napper, 2006). 이러한 정서적 부적응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 정서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같은 각종 중독문제, 자살 충동 등 보다 심각한 임상적 문제와도 관련된다(Ebesutani et al, 2015; Hirsch, Chang & Jeglic, 2012). 특히, 우울, 불안, 분노는 DSM-5에서 거론되는 많은 심리적 장애의 핵심증상들을 구성하며(김청송, 2016),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의 범주에 속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외로움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Nicpon 등(2007)은 대학생들의 외로움이 대학생들의 적응이나 학업문제, 나아가 삶의 전망에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 맥락에서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정서적 부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뿐 아니라 외로움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정서적 부적응은 빈번한 부정적 정서경험과 관련되지만,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정서의 감소가 곧 긍정적 정서경험의 증가나 성공적인 적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권석만, 2008). 이에 따라 대학생의 정서적 부적응과 더불어 긍정적 정서의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 중 하나가 주관적 행복감이다. 주관적 행복감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의 안녕감과 삶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말한다(Compton, 2005). 즉,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적으며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 등 부정적 정서와 주관적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지만, 상관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홍월, 2009; 장태영, 2014; 최지연, 2016). 이러한 결과는, 빈번한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부적응과 주관적 행복감이 비교적 독립적인 별개의 차원이므로 이 두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대학생의 정서적 기능을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권석만, 2008).

의심할 여지없이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정서적 부적응과 주관적 행복감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새로운 발달단계에 들어가면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는 이 전에 비해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발달시키고 유지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정서적 부적응이나 다른 대인관계 관련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Nelson, 2013). 이와 같이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나 동기로 인해 개인이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행동경향성을 지칭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Rubin & Coplan, 2004; Özdemir, Cheah & Coplan, 2015). 더욱이 임상적으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우울, 불안, 신체화 등과 함께 내재화 문제에 포함되는 행동 문제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으며, 다른 내재화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wker, Rubin & Coplan, 2012).

사회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사람이나 사회적 상황을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낸다(Rubin & Burgess, 2001; Rubin, Coplan & Bowker, 2009). 그리고 이러한 행동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낙인과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Bowker & Raja,

2011). 특히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될 경우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 및 회피성 성격장애, 학업 실패, 자살시도, 범죄 행동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은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이봉주 외, 2014; 최정아, 2014; Oh et al, 2008).

사회적 위축은 전통적으로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다. 국내 연구에서도 최근의 몇몇 연구(공미정, 이동형, 2017; 김원희, 이동형, 김문재, 남윤주, 2016; 윤미설, 이동형, 2015)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위축에 관한 연구가 점차 정교화되어 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철회하는 다양한 동기를 구분하는 관점(Asendorf, 1990)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여러 하위유형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김원희 외, 2016; Bowker & Raja, 2011). 대표적으로 Asendorpf(1990)는 사회적 위축이 사회적 접근 동기와 사회적 회피 동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수줍음(shyness)형', '비사교(unsociability)형', '회피(avoidance)형' 위축으로 구분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줍음(shyness)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모두 높다.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실패로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며(Asendorpf, 1990), 특히 과도한 경계심과 두려움, 우울 등 다양한 내재화 문제를 보고한다(Bowker & Raja, 2011; Coplan, Arbeau & Armer, 2008). 수줍음을 많이 느끼는 아동·청소년들은 내재화 문제와 함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13; Coplan, Wilson, Frohlick & Zelenski, 2006), 수줍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조수연, 2010; 정민, 2013; Izard, Libero, Ptnam, & Haynes, 1993; Leary, 1986). 또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를 보고한 청소년 대상의 국내(윤미설, 이동형, 2015) 및 국외 연구(Bowker & Raja, 2011)에서도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중 수줍음형 집단은 비위축 집단이나 다른 유형의 위축 집단에 비해 보다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를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대학생 대상의 국외 연구(Nelson, 2013)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사교(unsociability)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을 특별히 회피하지는 않는 특성을 보인다(Bowker, Markovic, Cogswell & Raja, 2012; Nelson, 2013). 이들은 사회적 접근동기가 높지 않은 동시에 회피동기 또한 높지 않다. 비사교형 위축은 '고독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solitude)'이자 혼자자기를 지향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며(Leary, Herbst & McCrary, 2003), 사회적 접근 및 회피동기가 모두 낮기 때문에 '홀로 있음(solitude)'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Rubin & Asendorpf, 1993). 비록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으로서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대

학생의 고독선호나 비사교성에 따라 사회·정서적 부적응의 차이를 비교한 대학생 대상의 선행 연구들(이유정, 2011; 임아영, 2010; 최현영, 2014)에서 비사교적인 특성이 우울, 정서조절, 외로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을 수줍음형, 회피형, 비사교형으로 구분한 Nelson(2013)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 따르면 비사교형 집단의 대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위축 집단 대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비위축 집단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회피(avoidance)형은 사회적 접근 동기가 낮은 동시에 사회적 회피 동기는 높은 경우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의도적으로 홀로 있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된다(Coplan et al, 2013). 그러나 회피형 위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행동 양상이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뚜렷한 하위유형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Özdemir et al, 2015). 예컨대, Liu 등(2014)은 수줍음형 위축과 비사교형 위축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회피형 위축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고, Özdemir 등(2015)은 동양문화권에서 대체로 회피형 위축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절(regulated)형 위축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으로서 개념화 및 조작화 측면에서 아직 논쟁이 되고 있는 회피형 위축과 최근에 제안되어 아직 개념적 타당성이 확립되지 않은 조절형 위축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두 유형(즉, 수줍음형, 비사교형)에 국한하여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위축 연구자들은 다양하고 비밀관된 성차 분석 결과를 보고해 왔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줍음형 위축을 보인다는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사교성 위축을 보인다는 결과, 사회적 위축에는 유의한 성차가 없다는 결과, 사회적 위축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부적응을 보인다는 결과 등이 그것이다(공미정, 이동형, 2017; 윤미설, 이동형, 2015; Özdemir et al, 2015; Rubin et al, 2009). 즉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위축의 구체적인 하위유형, 대상, 문화권,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양상의 성차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 위축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현재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Bowker & Raja, 2011; Doey, Coplan, & Kingsbury, 2014; Nelson, 2013). 더욱이 본 연구의 정서적 부적응 관련 변인들이나 주관적 행복감도 흔히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는 변인들이다. 예컨대, 우울과 불안, 분노는 여학생이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고홍월, 2009; 박미하, 김은혜, 2012; 손선옥, 이봉주, 2015; 정현미, 황순택, 이숙희, 2008), 외로움의 경우에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유정, 2011; 조수연, 2010), 주관적 행복감은 남학생이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홍월, 2009; 이수진, 2011).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위축 연구들은 대체로 수줍음형 위축이 가장 광범위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보이고, 비사교형 위축은 수줍음형 위축보다는 낮지만 비위축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윤미설, 이동형, 2015; Bowker et al, 2012; Coplan et al, 2013). 그러나 고독선호 동기가 높은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비사교성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들(이유정, 2011; 임아영, 2010; 최현영, 2014)도 일부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기결정적으로 홀로있음(solitude)을 선택한 경우라면 주관적 행복감 같은 긍정적 지표들과 정적으로 관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동·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들은 수줍음형 위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양상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비사교형 위축에 따른 적응적 결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정서적 부적응의 지표(즉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뿐 아니라 긍정적 지표(즉 주관적 행복감)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발달적 변화의 양상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사회적 위축 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에 편중되어 있고(이봉주 외, 2014), 아동·청소년기에 비해 보다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특히 Bowker와 Raja(2011)는 사회적 위축과 같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회적 행동의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배적인 서구문화권의 연구결과를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한 동양문화권에 그대로 일반화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수 있는 국내 대학생 대상의 사회적 위축 연구, 즉 사회적 위축을 단일 특성으로 보기 보다는 하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다양한 정서적 기능 지표와의 차별적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라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Nelson(2013)이 제안한 대상자 중심 분석 절차에 따라 연구대상자 중 수줍음형 위축 집단, 비사교형 위축 집단, 비위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성별을 고려하여 이들 집단 간에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에서 어떠한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즉, 수줍음과 비사교성)은 본질적으로 범주적이기보다는 연속적, 차원적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유형 집단별 차이 분석에 앞서 사회적 위축의 이러한 하위요인들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성별과 수줍음(혹은 비사교성)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후에 비사교성(혹은 수줍음형 위축)이 정서적 부적응이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하위요인의 고유한 역할을 탐색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위축의

성차가 쟁점으로 다루어져왔으며, 그 외 다른 변인들의 경우에도 흔히 유의한 성차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성차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온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개념을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에게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축된 국내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수줍음 및 비사교성), 정서적 부적응(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과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각 하위요인은 성별과 다른 하위요인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정서적 부적응과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대학생의 성별과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수줍음형 집단, 비사교형 집단, 비위축 집단)에 따라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영남권의 B광역시 혹은 D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포함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교의 교양 및 전공수업의 강사에게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간단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816부를 수거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이나 같은 번호의 반복응답 등 불성실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설문지 67부를 제외하고, 총 74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여학생(54.5%)이 남학생(45.5%)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보였고, 학년별 분포에서는 1학년(34.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28%), 2학년(22.6%), 4학년(14.6%) 순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을 측정하고 연구대상자를 하위유형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Coplan, Prakash, O'Neil과 Armer(2004)가 아동용(Child Social Preference Scale: CSPS)으로 개발하고, 이후 Nelson(2013)이 개정한 성인진입기 사회적 선호척도(Emerging Adulthood Social Preference Scale: EASP)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선호,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위축 이면의 사회적 접근-회피 동기 요인인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를 측정하여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구분할 뿐 아니라 관련 개념인 사회적 고립을 구분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회피를 측정하는 10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비사교성 4문항, 수줍음 6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을 위하여 본 연구자와 5명의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이 독립적으로 문항을 번역하였고, 통합과정을 거쳐 1차 번역본을 구성하였다. 이후 교육학 교수 1인의 역번역과 교정을 통해 2차 번역본을 구성하였고, 이를 대학생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개별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재수정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번안된 척도의 응답 방법은 원판과 동일하게 Likert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10문항의 Cronbach's  $\alpha$ 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N=749)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적합성 검증 결과(KMO=.85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  $\chi^2=3264.82$ ,  $p<.001$ ),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우도요인 추출법과 직접 오블리민 사각회전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해석한 결과, 수줍음(1요인 6문항)과 비사교성(2요인 4문항)을 대표하는 2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수줍음 .89, 비사교성 .75였다. 한편, 번안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줍음을 측정하는 Cheek과 Buss(1981)의 수줍음척도와 비사교적 특성을 측정하는 Burger(1995)의 고독선호척도를 각각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번안된 사회적 선호척도의 수줍음 척도와 비사교성 척도는 기존의 수줍음척도(.81), 고독선호척도(.61)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한 사회적 선호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지지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자 중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집단에 포함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Nelson(2013)이 제안한 방식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 번안한 사회적 선호척도의 수줍음 점수와 비사교성 점수의 백분위에 따라 수줍음형 집단, 비사교형 집단, 비위축 집단 혹은 미분류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각 수줍음 점수와 비사교성 점수의 백분위를 구한 후 수줍음이 상위 25% 이상이면서 비사교성이 하위 75% 이하인 대상자를 수줍음형 집단( $n=115$ , 15.4%)으로



분류하였다. 비사교성이 상위 25% 이상이면서 수줍음이 하위 75%이하인 대상자들은 비사교형 집단( $t=164$ , 21.9%)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수줍음과 비사교성 점수가 모두 하위 75%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비위축 집단( $t=358$ , 47.8%)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두 가지 하위요인 점수가 모두 상위 25% 이상인 대상자들의 경우( $t=112$ , 14.9%), 미분류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 2) 우울

Radloff(1977)가 개발하고 타당화하여 미국 국립정신보건 연구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우울증 선별용 간편 검사도구인 CES-D를 사용하였다. 국내에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한국판 CES-D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통합적으로 개발한 한국판 CES-D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작되었으며 Likert식 4점 척도(0:극히 드물게/1일 이하~3:거의 대부분/5~7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 중 4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 3) 사회적 불안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 및 잠재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하고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Social Avoidance & Distress Scale: SAD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 방법은 Likert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심하게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 중 14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전체 .91, 사회적 회피 .87, 사회적 불안 .83으로 나타났다.

## 4) 특성분노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개발하여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그리고 분노표현의 세 가지 형태인 분노통제,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상황에 대해 화가 나고, 좌절감을 경험케 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성분노

의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 방법은 Likert식 4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4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Cronbach's  $\alpha$ 는 상태분노 전체가 .85로, 분노기질 .83, 분노반응 .78이었다.

### 5) 외로움

Russel, Peplau 및 Ferguson(1978)이 개발하고 김옥수(1997)가 번안 및 타당화한 개정판 UCLA 외로움척도(UCLA Loneliness Scale-Revise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외로움의 심리적 상태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에 따라 Likert식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자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 중 10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6) 주관적 행복감

대학생의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하고 김인자(2006)가 번안한 주관적 행복감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 방법은 Likert식 7점 척도 상에서 자신이 지각하는 상태를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수줍음 및 비사교성)과 정서적 부적응 지표(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 및 주관적 행복감의 기술통계와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을 통제한 후 사회적 위축의 두 가지 하위요인이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에 고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을 1단계,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을 2단계의 예언변인으로, 각 정서적 부적응 지표들과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성별과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수줍음형 집단, 비사교형 집단, 비위축 집단)에 따라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이원 다변량분산분석(Two-way MANOVA)과 이원 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차이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한 경우)과 *Scheffe*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차

사회적 위축의 두 하위요인(수줍음 및 비사교성)과 정서적 부적응(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수줍음( $t=-3.62, p<.001$ ), 비사교성( $t=-3.47, p<.01$ ), 우울( $t=-2.24, p<.05$ ), 사회적 불안( $t=-3.37, p<.01$ ), 특성분노( $t=-2.48, p<.05$ )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로움( $t=0.46, p>.05$ )과 주관적 행복감( $t=0.53, p>.05$ )에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검증(N=749)

구분	남(n=341)		여(n=408)		전체(N=749)		t
	M	SD	M	SD	M	SD	
사회적 위축							
수줍음	2.68	0.79	2.88	0.75	2.79	0.78	-3.62***
하위요인							
비사교성	3.08	0.72	3.25	0.67	3.17	0.70	-3.47**
정서적 부적응							
우울	0.76	0.49	0.84	0.46	0.80	0.47	-2.24*
사회적 불안	2.72	0.56	2.85	0.52	2.79	0.55	-3.37**
특성분노	1.89	0.56	1.99	0.52	1.94	0.54	-2.48*
외로움	1.89	0.48	1.88	0.43	1.89	0.46	0.46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5.02	1.13	4.98	0.95	5.00	1.03	0.53

\*  $p<.05$ , \*\*  $p<.01$ , \*\*\*  $p<.001$

#### 2.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과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과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 간에 유의하지만 비교적 낮은 정적 상관( $r=.26, p<.001$ )이 있었다. 수줍음은 모든 정서적 부적응의 지표들과는 낮은 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 $r=.14 \sim r=.73, p<.001$ )을, 주관적 행복감과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 $r=-.39, p<.001$ )을 보였다. 반면, 비사교성은 사회적 불안( $r=.31, p<.001$ )과 정적상관을, 주관적 행복감( $r=-.10, p<.001$ )과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N=749$ )

구분		1	2	3	4	5	6	7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	1. 수줍음	-						
	2. 비사교성	.26***	-					
정서적 부적응	3. 우울	.37***	.04	-				
	4. 사회적 불안	.73***	.31***	.45***	-			
	5. 특성분노	.14***	-.03	.29***	.11**	-		
	6. 외로움	.48***	.07	.60***	.60***	.16***	-	
주관적 행복감	7. 주관적 행복감	-.39***	-.10**	-.50***	-.46***	-.18***	-.50***	-

\*  $p < .05$ , \*\*  $p < .01$ , \*\*\*  $p < .001$ 

### 3.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이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주요 변인들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사회적 위축의 각 하위요인이 정서적 부적응과 주관적 행복감에 고유한 설명력을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을 1단계로, 사회적 위축의 두 가지 하위요인을 2단계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가정을 점검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에 따라 1.75~1.91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산팽창계수(VIF)가 1.03~1.08, 상태지수는 3.13~12.67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한 검증에서 대부분 변인들의 성차가 유의하였으므로 성별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남학생=0, 여학생=1) 분석에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을 투입하여 준거변인에 미치는 가외변인(성별)의 영향을 통제 한 후, 2단계에서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을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각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이 1단계에서 투입되었을 때, 앞서 제시한 *t*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우울, 사회적 불안 및 특성분노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두 하위요인이 투입되었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3%(특성분노)에서 54%(사회적 불안)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한편, 2단계에서 수줍음은 성별과 비사교성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우울( $\beta = .38$ ,  $p < .001$ ), 사회적 불안( $\beta = .69$ ,  $p < .001$ ), 특성분노( $\beta = .15$ ,  $p < .001$ ), 외로움( $\beta = .50$ ,  $p < .001$ ) 및 주관적 행복감( $\beta = -.39$ ,  $p < .001$ )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비사교성은 성별과 수줍음의 영향을 통제 한 상태에서 사회적 불안( $\beta = .13$ ,  $p < .01$ ) 및 특성분노( $\beta = -.08$ ,  $p < .05$ )에 대해서만 고유한 설명력이 있었다. 즉 성별과 수줍음이 통제된 상태에서 비사교성은 더 이상 주관적 행복감( $\beta = .00$ ,  $p > .05$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성분노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8$ ,  $p < .05$ )

<표 3> 성별 및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이 주요 변인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및 변인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			주관적 행복감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단계1															
성별	.08	.04	.08*	.13	.04	.12**	.10	.04	.09*	-.02	.03	-.02	-.04	.08	-.05
단계2															
성별	.04	.03	.04	.02	.03	.02	.09	.04	.08*	-.07	.03	-.08*	.07	.07	.03
수줍음	.23	.02	.38***	.49	.02	.69***	.10	.03	.15***	.29	.02	.50***	-.52	.05	-.39***
비사교성	-.05	.02	-.07	.10	.02	.13**	-.06	.03	-.08*	.04	.02	-.06	.00	.05	.00
$R^2$ (단계 1)	.01*			.02**			.01*			.00			.00		
$\Delta R^2$	.14***			.54***			.03***			.23***			.15***		
F	40.16***			295.85***			7.49***			77.11***			44.43***		

\* p<.05, \*\* p<.01, \*\*\* p<.001

#### 4. 성별과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성별과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수줍음형 집단, 비사교형 집단, 비위축 집단)에 따라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 부적응(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 분노, 외로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Two-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검정 결과, 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는 *Wilks' Lambda* 값이 .98( $F=3.92, p<.01$ ), 하위유형 집단의 주효과는 *Wilks' Lambda* 값이 .82( $F=16.39, p<.001$ )로 각각 유의하였으나, 성별과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Wilks' Lambda* 값이 .9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84, p>.05$ ). 이를 통해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의 정서적 부적응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변인이 성별 혹은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은 우울( $F=5.03, p<.05$ )과 특성분노( $F=6.05,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유형 집단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의 차이는 우울( $F=19.83, p<.001$ ), 사회적 불안( $F=57.80, p<.001$ ), 특성 분노( $F=4.31, p<.05$ ), 외로움( $F=26.79, p<.001$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한편 성별과 하위유형 집단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 $F=12.35, p<.001$ )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성별의 주효과( $F=.12, p>.05$ )와 성별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F=.73, p>.05$ )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에 따라 정서적 부적응과 주관적 행복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집단 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 5>는 사후검증결과와 각 집단 및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줍음형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 등 모든 정서적 부적응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사교형 집단은 비위축 집단보다는 높지만 수줍음형 위축 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을 보였으며, 그 외의 지표들에서는 비위축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에도 수줍음형 위축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주관적 행복감이 낮았으며, 비사교형 위축 집단은 비위축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줍음형 위축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함과 동시에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집단이며, 비사교형 집단은 사회적 불안 외에 다른 지표들에서 비위축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성별과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 다변량 및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종속변수		Wilks' Lambda	SS	df	MS	F
성별	정서적 부적응	우울	.98***	1.00	1	1.00	5.03*
		사회적 불안		0.45		0.45	2.13
		특성분노		1.64		1.64	6.05*
		외로움		0.02		0.02	0.10
집단	정서적 부적응	우울	.82***	7.85	2	3.92	19.83***
		사회적 불안		24.37		12.18	57.80***
		특성분노		2.34		1.17	4.31*
		외로움		10.15		5.08	26.79***
		우울		0.05		0.03	0.14
		사회적 불안		0.03		0.02	0.07
성별 × 집단	정서적 부적응	특성분노	.99	0.22	2	0.11	0.41
		외로움		0.43		0.22	1.14

\* p<.05, \*\* p<.01, \*\*\* p<.001

<표 5> 성별과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에 따른 변인 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결과(N=637)

구분	성별				평균 비교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						Scheffe 검증
	남 (n=303)		여 (n=334)			1.수줍음형 (n=115)		2.비사교형 (n=164)		3.비위축 (n=358)		
	M	SD	M	SD		M	SD	M	SD	M	SD	
우울	0.76	.03	0.85	.03	남<여	1.00	.04	0.68	.04	0.74	.02	1>3,2
사회적 불안	2.76	.03	2.82	.03		3.10	.04	2.70	.04	2.57	.02	1>2>3
특성분노	1.89	.04	2.00	.03	남<여	2.05	.05	1.87	.04	1.91	.03	1>3,2
외로움	1.91	.03	1.89	.03		2.12	.04	1.78	.03	1.80	.02	1>3,2
주관적 행복감	4.99	.07	5.02	.06		4.66	.09	5.18	.08	5.17	.05	2,3> 1

\*Scheffe검증에서 수줍음형 집단은 1, 비사교형 집단은 2, 비위축 집단은 3으로 표기.

## IV. 논의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있는 749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수줍음 및 비사교성)과 정서적 부적응(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 분노, 외로움)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라 대학생들을 수줍음형 집단, 비사교형 집단, 비위축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들 집단 간에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일부 변인에서 성차를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모든 통계 분석에서 성별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차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줍음, 비사교성,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의 성차를 알아본 결과, 수줍음과 비사교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수줍음 및 비사교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에서 여자대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 결과는 한국, 중국, 서구권 국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선행연구(공미정, 이동형, 2017; Crozier, 1995; Liu et al., 2014)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수줍음의 성차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진입기에도 지속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수줍음이 성별 자체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서구권의 선행연구들(Doey, Coplan, & Kingbury, 2013; Rubin et al., 2009)이나 국내 청소년 대상의 일부 연구(윤미설, 이동형, 2015)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상충되는 것이니 만큼, 일반화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Doey 등(2013)은 수줍음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불안, 우울 등 내재화 문제를 보다 기꺼이 보고하는 여학생의 반응 편향일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불안과 공유하는 변량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이러한 성차는 수줍음과 관련된 여학생의 사회적 회피나 억제 성향이 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거나 권장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진정한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수줍음의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차의 원인을 밝히는,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수줍음의 성차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연구들이 항상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통해 성차를 검증하고 성차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사교성의 성차 또한 새로운 결과인데, 이는 청소년(중학생) 대상의 국내 연구(공미정, 이동형, 2017)나 중국 청소년 대상의 연구(Liu et al., 2014)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나, 남학생이 도리어 더 높은 수준의 비사교성을 보인다는 결과(윤미설, 이동형, 2015)와 상반되는 것인 바, 수줍음과 마찬가지로 비사교성의 성차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물들이 누적된 후 정확한 해석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에서는 유의한 성차(여>남)가 나타난 반면, 외

로움과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이는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 등에 대한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들(박미하, 김은혜, 2012; 손선옥, 이봉주, 2015; 이유허, 2011; 정현미, 황순택, 이숙희, 2008; 조수연, 2010)에서 보고된 성차의 양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주요 부정적 정서와 관련하여 여자대학생들이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취약한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수줍음과 비사교성 간에 유의하지만 비교적 낮은 정적 상관(.2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연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공미정, 이동형, 2017; 윤미설, 이동형, 2015; Bowker et al, 2012; Bowker & Raja,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상의 국외의 선행연구(Nelson, 2013)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회적 위축이 단일한 특성을 가진 일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기저의 사회적 동기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주장(Asendorf, 1990; Rubin et al., 2009)을 지지한다.

셋째, 수줍음 및 비사교성과 정서적 부적응 지표들 간 상관의 크기와 양상은 구체적인 하위요인과 정서적 부적응 지표(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줍음은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정서적 부적응의 지표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14~.73)을 보인 반면, 비사교성은 사회적 불안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수줍음과 비사교성은 모두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성별 및 수줍음과 공유하는 변량이 통제되었을 때, 비사교성은 주관적 행복감을 더 이상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성별과 수줍음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 비사교성은 특성분노에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과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 지표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과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08; Kim et al., 2008; Mounts et al., 2006; Muris et al., 2001; Woodhouse et al., 2012)나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Nelson, 2013)에서 보고된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수줍음이 내재화 문제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는 것(조수연, 2010; 정민, 2013; Izard et al., 1993; Leary, 1986)과 마찬가지로, 성인진입기에 있는 국내 대학생의 수줍음 또한 정서적 부적응이나 주관적 행복감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수줍음은 성별을 통제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위축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일관되게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줍음이 부정적 및 긍정적 적용의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사교성과 정서적 부적응 간에는 사회적 불안에서 유일하게 정적 상관(.31)을 보였을 뿐, 성별과 수줍음을 통제한 후에는 비사교성이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지 못했고, 오히려 특성분노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는 결과는 국내 청소년(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원희 외, 2016; 윤미설, 이동형, 2015)에서 비사교성이 사회적 불안뿐만 아니라 다른 정서적 부적응의 지표에서도 동반 상승하며, 비록 수줍음에 비해 낮을지라도 경미한 수준의 유의한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보고한다는 결과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관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사교성과 사회적 불안 간의 상관(.31)이 국내 중학생 대상의 다른 연구들(김원희 외, 2016; 윤미설, 이동형, 2015)에서 나타난 상관의 크기와 매우 유사(각각 .33과 .34)하고 그 외의 다른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점은 서구권의 성인진입기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Nelson, 2013)에서 나타난 양상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진입기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사교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감소한다는 Nelson(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Nelson(2013)이 제안한 분류방식에 따라 연구대상자 중 수줍음형 집단, 비사교형 집단, 비위축 집단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한 후 성별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줍음형 집단은 우울, 사회적 불안, 특성분노, 외로움 등 모든 정서적 부적응 지표에서 비사교형 집단 및 비위축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사교형 집단은 사회적 불안을 제외하고는 여러 정서적 부적응 지표나 주관적 행복감에서 비위축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를 재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중 수줍음형 위축이 정서적 부적응 지표들과 가장 상관이 높거나 다른 하위유형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들(공미정, 이동형, 2017; 김원희 외, 2016; 윤미설, 이동형, 2015; Bowker & Raja, 2011; Bowker et al, 2012; Coplan et al., 2013; Kim et al., 2008; Liu et al., 2014; Nelson, 2013; Özdemir et al,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는 비사교형 위축이 수줍음형 위축에 비해 '경미한(benign)' 형태의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이라는 주장(윤미설, 이동형, 2015; 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13)을 지지하며, 이러한 주장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넘어서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의 국내 연구에서 성별과 다른 하위요인의 사회적 위축(수줍음, 회피)을 통제된 이후에도 비사교성이 우울과 외로움을 여전히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본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과의 낮은 정적 상관 외에는 다른 정서적 부적응의 지표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 및 수줍음과 공유하는 변량을 통제된 후에는)주관적 행복감과도 관련이 없으며 특성분노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인진입기의 비사교성 혹은 비사교형 위축은 그 부정적 영향이 청소년기에 비해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비사교적인 대학생들이 '자기결정적'으로 홀로있음(solitude)을 선택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일부 국내 연구들(이유정, 2011; 임아영, 2010; 최현영, 2014)은 이러한 해석의 타당

성을 뒷받침한다. 가령, 임아영(2010)은 대학생들이 자기결정적으로 고독을 선택한다면 이는 내재화 문제를 낮추고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비사교형 위축 집단으로 분류된 대학생들 중 상당수는 우울, 특성분노, 외로움의 정서적 부적응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기나 성인진입기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 양상을 살펴본 관련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고찰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위축의 적응적 함의가 구체적인 하위유형에 따라(수줍음형 대 비사교형), 그리고 발달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회적 위축의 대표적 하위유형으로서 수줍음형 위축의 부정적 영향은 성인진입기에도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비사교형 위축의 부정적 영향은 성인진입기에 이르러 더욱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성인진입기에서도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의 개념이 유용함을 지지하며,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개입에 있어서 하위유형에 따른 특성, 곧 사회적 접근 및 회피 동기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영남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성인진입기에 있는 다른 대상자 표본, 특히 성인진입기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성인진입기 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맥락과 직장인의 사회적 맥락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역할 요구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진입기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의 적응적 함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인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비사교형 위축 집단으로 분류된 대학생들은 사회적 접근 동기가 낮지만 동시에 회피 동기가 높지 않아 스스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철회하는 행동특성을 보이는 집단인데, 이러한 행동경향성이 어느 정도로 자기결정적 인지는 적지 않은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적 동기 수준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히 결과의 해석을 제한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동기의 여부나 정도에 따라 적응적 결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이나 '홀로 있음'의 적응적 함의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의 세 가지 하위유형 중, 동양문화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회피형을 제외하고, 수줍음형 위축과 비사교형 위축의 두 가지 유형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최근 연구(Özdemir et al., 2015)에 따르면 동양문화권에서 '조절(regulated)'형 위축이 의미 있는 한 하위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으며, 국내 청소년 대상의 최근 한 연구(공미정, 이동형, 2017)도 조절형 위축이 수줍음형 및 비사교형 위축과 함께 사회적 하위유형의 타당한 하위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새

로운 유형을 포함시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의 차별적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설계에 의한 실증 연구로서 비록 청소년기의 관련 연구들과 비교하여 성인진입기의 발달적 차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였으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의 발달적 변화를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의 발달 양상에 대한 종단 연구나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발달적 변화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관련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서구권뿐 아니라 동양문화권에서도 연구되기 시작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의 개념을 성인진입기의 국내 대학생들에게 처음 적용하여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의 지표들 및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부분 아동·청소년기에만 집중되어있던 사회적 위축 연구를 성인진입기로 확대하여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개념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비사교형 위축이 청소년기와는 다른 적응적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변인중심 분석방법에 더하여 대상자 중심 분석을 적용하여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사회·정서적 적응지표들에서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상담이나 교육 장면에서 만나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대학생들의 하위유형을 진단, 이해, 개입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홍월(2009). 한·중 대학생의 정신 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1), 55-71.
- 공미정, 이동형(2017).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및 지각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2), 209-234.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옥수(1997). 외로움의 개념분석. **간호과학**, 9(2), 29-38.
- 김인자(2006). **긍정심리학**. 서울: 물푸레.
- 김원희, 이동형, 김문재, 남윤주(2016).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27-348.
- 김청송(2016). **사례중심의 이상심리학 DSM-5**. 서울: 싸이북스.
- 대학내일 20대연구소(2016). **2016 한국 20대의 관계맺기 新풍속도: 관태기를 겪고 있는 20대의 인간관계 인식 및 실태조사(연구리포트 2016-09호)**. 대학내일 20대연구소.
- 박미하, 김은혜(2012). 기독교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19, 125-156.
- 손선옥, 이봉주(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영향 요인: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청소년학연구**, 22(10), 1-26.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용(201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윤미설, 이동형(201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2(9), 301-326.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수진(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 이유정(2011). **고독선호도, 자기결정적 고독 동기와 긍정 정서의 관계: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정윤, 최정훈(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임아영(2010). **자기결정적 고독과 성격 및 심리적 건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장태영(2014). **대학생의 긍정 및 부정정서 경험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정민(2013).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대한 성격, 사회적 기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수줍음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995-2010.
- 정현미, 황순택, 이수희(2008). 대학생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의 분노 경험 및 분노 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153-165.
- 조수연(2010). **수줍음이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최정아(2014).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집**, 11, 377-378.
- 최지연(2016). **대학생의 부정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영(2014). **‘홀로 있음’에서 고독과 외로움간의 차이 탐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 468-480.
-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 250-259.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2), 201-212.
- Bowker, J. C., Markovic, A., Cogswell, A., & Raja, R. (2012). Moderating effects of aggression on th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withdrawal subtypes and peer difficultie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8), 995-1007.
- Bowker, J. C., Rubin, K., & Coplan, R. (2012). Social withdrawal during adolescence. In R. Levesque (Ed.),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ew York: Springer.
- Burger, J. M. (1995). Individual differences in preference for solitud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85-108.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30-339.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Australia: Thomson/Wadsworth.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 Coplan, R. J., Arbeau, K. A., & Armer, M. (2008). Don't Fret, be Supportive! Maternal characteristics linking child shyness to psycho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3), 359-371.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Kingsbury, M., Bullock, A., & Kingsbury, A. (2013). Alone is a crowd: Social motivations, social withdrawal,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861-875.
- Coplan, R. J., Wilson, J., Frohlick, S. L., & Zelenski, J. (2006). A person-oriented analysis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behavioral activation in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5), 917-927.
- Crozier, W. R. (1995). Shyness and self-esteem in middle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 85-95.
- Doey, L., Coplan, R. J., & Kingsbury, M. (2014). Bashful boys and coy girls: A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childhood shyness. *Sex Roles: Journal of Research*, 70, 255-266.
- Ebesutani, C., Fierstein, M., Viana, A. G., Trent, L., Young, J., & Sprung, M. (2015). The role of lonel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in clinical and school-based youth. *Psychology in the Schools*, 52(3), 223-234.
- Hirsch, J. K., Chang, E. C., & Jeglic, E. L. (2012). Social problem solving and suicidal behavior: Ethnic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s of loneliness and life stres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6(4), 303-315.
- Izard, C. E., Libero, D. Z., Putnam, P., & Haynes, O. M. (1993). Stability of emotion experience and their relations to trait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pp. 847-860).
- Kim, J., Rapee, R. M., Oh, K., & Moon, H. (2008). Retrospective report of social withdrawal during adolescence and current mal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ross-cultural comparisons between Australian and South Korean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31(5), 543-563.
- Leary, M. R. (1986).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shyness: Implications for theory, measurement, and research. In W. H. Jones, J. M. Cheek, & S. R. Briggs (Ed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pp. 27-38). New York: Plenum.
- Leary, M. R., Herbst, K. C., & McCrary, F. (2003). Finding pleasure in solitary-activities: Desire for aloneness or disinterest in social conta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Differences, 34*, 59-68.

- Liu, J., Coplan, R. J., Chen, X., Li, D., Ding, X., & Zhou, Y. (2014). Unsociability and shyness in Chinese children: Concurrent and predictive relations with indices of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23*, 119-136.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Napper, O. G. (2006). Meditation and relaxation awareness. *Teaching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7*, 18-19.
- Nelson, L. J. (2013). Going it alone: Comparing subtypes of withdrawal on indices of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22*(3), 522-538.
- Nicpon, M. F., Huser, L., Blanks, E. H., Sollenberger, S., Befort, C., & Kurpius, S. E. (2007). The relationship of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with college freshmen's academic performance and persistence.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8*(3), 345-358.
- Oh, W., Rubin, K. H., Bowker, J. C., Booth-LaForce, C.,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53-566.
- Özdemir, S. B., Cheah, C. S. L., & Coplan, R. J. (201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multiple forms of social withdrawal in Turkey. *Social Development, 24*, 142-16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ubin, K. H., & Asendorpf, J. B. (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Conceptu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7),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In M. W. Vasey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 407-434),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Coplan, R. J.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0*, 506-534.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Russe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3), 290-294.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87.

\*논문접수 2017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7년 9월 9일 / 게재승인 2017년 9월 21일

\* 윤미설: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출강하고 있다.

\* E-mail: promise216@nate.com

\* 이동형: 미국 Texas A&M 대학교에서 학교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교육청에서 학교심리학자로 근무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E-mail: leepsy@pusan.ac.kr



## Abstract

## Subtype Differences of Social Withdrawal in Emotional Maladjustment and Subjective Happiness in Emerging Adulthood\*

Miseol Yun

Donghyung Lee\*\*

This study compared two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i.e., shyness and unsociability) on several indices of emotional maladjustment (i.e., depression, social anxiety, trait anger, and loneliness)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749 college students in emerging adulthood in consideration of possible gender differences. T-tests revealed that fe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shyness, unsociability, depression, social anxiety, and trait anger than male students. Correla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shyness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all indices of emotional maladjustment and negatively with subjective happiness, while unsociability was correlated positively only with social anxiety and negatively with subjective happiness; howev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gender and shyness, unsociability did not have a unique contribution to subjective happiness and negatively contributed to trait anger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Moreover, according to findings from person-centered analyses(Nelson, 2013), the shy-withdrawn group demonstrated the highest level of emotional maladjustment in terms of depression, social anxiety, trait anger, and loneliness and the lowest 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compared to unsociable-withdrawn or non-withdrawn groups. In contrast, the unsociable-withdrawn group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on-withdrawn group on all dependent variables, except for social anxiety, in which the unsociable-withdrawn group had a lower level than the shy-withdrawn group, but a higher level than the non-withdrawn group. Our findings support the utility of the concept of social withdrawal subtypes and extend previously findings, in which adjustment outcomes of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significantly vary depending on its subtypes, to emerging adulthood with an implication that the negative impacts of unsociability appear to be greatly decreased in emerging adulthood.

Key words: Social withdrawal subtypes, emotional maladjustment, subjective happiness, shyness, unsociability

\*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bmitted to PNU in 2017.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